

K-제약바이오, 임상·기술 수출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성과 가속
유한양행 '렉라자', 유럽 품목허가
위장관 치료제 글로벌 임상 진행
알테오젠 피하주사 제형 기술 공략

2025년에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수출 성과가 K제약·바이오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맵)' 병용요법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유럽에서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국산 항암제인 렉라자가 같은 용법으로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은 데 이어 유럽 의약품 시장에도 진출한다.

유한양행은 일찍이 2018년 11월 렉라자를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 자회사인 안센에 기술수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기술수출로 자사가 발굴한 신약 후보물질을 상업화하고 로열티 수익도 증대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 펼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지금까지 총 4조 7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퇴행성디스크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YH14618'의 경우 미국 스프링필드바이오에 기술수출됐고 현재 미국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 유한양행이 미국 파트너사 프로 세사 파머슈티컬에 기술수출한 위장관 질환 치료제 'YH12852'은 임상 2a상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인공지능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원을 표현한 이미지.

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을 치료하기 위한 융합 단백질 'BI 3006337'도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으로, 유한양행은 글로벌 빅파마 베링거인겔하임과 해당 물질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은 제형 변경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공략한다. 알테오젠이 개발한 히알루로니다제 'ALT-B4'는 기존 정맥주사제제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알테오젠은 피하주사제 의약품 개발을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기업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항체 기반 치료제에 주로 적용하던 피하주

사 제형 변경 기술은 저분자화합물,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항체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알테오젠 측의 설명이다.

알테오젠은 지난달 3일 ALT-B4를 기술수출한 파트너사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산쿄로부터 계약금 2000만달러를 수령했다. 양사는 ALT-B4를 활용해 ADC 치료제 '엔허투'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있다.

또 알테오젠은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도 ALT-B4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데, 머크는 지난해 11월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을 도입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 임상 3상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머크의 대표 블록버스터 제품

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되는 경우, 알테오젠은 자사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유망 분야 중심으로 기술수출한 성과가 기업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도 있다. 항체·약물 복합체(ADC) 선두주자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으로 ADC 기술수출 성과를 올려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4년 10월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체결한 계약은 다양한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비임상 단계의 LCB97에 관한 것이다.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가 앞서 기술수출한 ADC 프로젝트 가운데 LCB14, LCB71, LCB84 등은 현재 글로벌 임상 단계에 진입해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의 중국 파트너사인 시스톤 파마슈티컬스는 지난달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LCB71' 임상 1b상에서 첫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LCB84는 지난 2023년 12월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드존슨에 기술이전됐고 현재 임상 1상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기술수출, 공동개발 등 지금까지 지속해 온 성과에 따라 경쟁력이 차별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 수의 창출력을 증명해 매출 실적뿐 아니라 향후 투자나 파트너십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종근당

글로벌 '혁신신약' 도전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구축할 것"

종근당은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종근당에 따르면 올해 시무식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효종연구소와 천안공장에 공유됐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목표로 현실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원과 역량을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연구개발 부문에서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근당은 합성 신약,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비롯한 항체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차세대 의약품 분야에서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2일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린 '2025년 시무식'에서 조옥제 유한양행 사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

"위기 속, 새 기회 창조"

글로벌 50대 제약사 목표

유한양행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유한양행 본사에서 '2025년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올해는 새로운 기회를 창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24년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한 렉라자를 비롯해 다수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 조옥제 유한양행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4년 경영환경은 글로벌 정세를 포함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불확실했다. 그 속에서 각자 자리에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 준 모든 임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조 사장은 "올해 경제상황은 경제 혼란 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신창래(開新創來)'의 마음으로 불확실성을 타개하자"며 "새로운 길을 창조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 또한 "투철한 책임감과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각 사업부별 수립된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청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조작 시 3배 배상"

게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게임사, 고의·과실 입증 책임져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이나 당첨률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실시된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다.

협회는 지난해 4월, 22대 국회를 대

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 정책 제안을 진행했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요청해 온 바 있다.

현행법에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용자 신뢰 확충과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나 과실에 의한 확률 오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직원의 실수(휴먼에러)나 시스템 상 오류(버그)로 인한 적용 확률과 표시 정보의 불일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vitna@

일회용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원 쿨' 선택

JW중외제약 눈 표면에 보호막 형성

JW중외제약은 일회용 점안제 브랜드 '프렌즈 아이드롭'에서 신제품 '프렌즈 아이원 쿨'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프렌즈 아이원 쿨'은 일반의약품으로 안구 건조, 바람과 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눈의 불편감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눈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이 제품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어, 눈 표면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눈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바람, 먼지, 건조한 공기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각막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프렌즈 아이원 쿨에는 L-멘톨 성분이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JW중외제약의 기존 제품인 '프렌즈 아이드롭 쿨'과 동일한 수준의 청량감을 갖췄다.

한편, 이번 프렌즈 아이원 쿨은 방부제와 보존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인 염화벤잘코늄 등은 들어있지 않아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무신사트레이딩, '챔피언' 브랜드 국내 유통

'어센틱 브랜드 그룹'과 파트너십

무신사의 브랜드 비즈니스 전문 자회사 '무신사트레이딩'이 스포츠 브랜드 '챔피언'의 국내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무신사트레이딩에 따르면, 지난 1일 글로벌 브랜드 매니지먼트 기업 '어센틱 브랜드 그룹'과 챔피언의 국내 공식 수입 및 유통에 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어센틱 브랜드 그룹'은 챔피언의 브랜드 소유주다.

'챔피언'은 지난 1919년부터 100여년간 팀 유니폼, 신발, 액세서리 등 스포츠 캐주얼 의류 및 잡화를 폭넓게 선보이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다. 특히, '챔피언'은 후드 스웨트셔츠를 최초로 선보인 만큼 독보적인 정체성과 상징성을 지닌 브랜드라는 게 무신사 측 설명이다. 이번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무신사트레이딩은 챔피언의 의류와 패션 소품 등 주요 제품을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할 권한을 확보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